

너랑 나랑 바람을 핏으면

독서 활동지

따스함과 공감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우정 이야기



피오나 카스웰 글 | 위롱 그림 | 김여진 옮김
값 16,000원 | 초등 전 학년



교과 성취기준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4, 5, 6학년 미술

- ◆ 관찰과 상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 표현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할 수 있다.

3, 4학년 국어

- ◆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너랑 나랑 바람을 핏으면》의 매력



저는 뚜벅이입니다.

자가용이 없는 건 물론이고, 운전면허도 없는 뚜벅이지요. 운전을 하면 15분이면 갈 학교를 꼬박 50분씩 걸려서 출퇴근하지만 괜찮아요. 하루하루 정말 값진 경험을 하거든요. 어떤 경험이냐고요? 바로 ‘사람 구경’입니다. 4년째 같은 학교로 출근하다 보니, 아침에 버스를 타면 늘 마주치던 사람들과 몇 년간 마주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머리를 뒤로 뒹갓히고 단잠에 빠져 있지요. 한 번도 그 사람이 깨어 있는 걸 본 적 없을 정도로요. 또 어떤 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좋아하는 웹툰을 꺼서 열렬하게 읽습니다. 창문을 열고 불어오는 바람에 하염없이 머리카락을 내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꼭 똑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남자는 꼭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요. 그러던 어느 아침,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는 제가 앉은 자리를 제외하면 거의 텅 비어 있다시피 했는데요. 하필 ‘그 남자’가 늘 앉는 운전석 뒷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죠. 어차피 다른 좌석이 잔뜩 남아 있었으니, 다른 좌석에 앉으면 되잖아요? 그 남자는 굳이 그 좌석으로 다가가서 “나, 여기 앉.아.야. 해.요.”라고 선언하듯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승객은 흘끗 그 남자를 보더니 “네, 여기 앉으세요.” 하고 비켜 주었죠.

도대체 무슨 영문이냐고요? 꼭 매일 똑같이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야 하는 ‘그 남자’는 근처 특수학교에 다니는 성인 학생이었어요. 그날따라 거기 앉았던 승객은 얼굴을 붉히거나 화내거나 따지지 않고 그런 ‘그 남자’의 요구를 받아 주었고요. 하지만 그 둘의 대화는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저 말고는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는 듯했어요. 《너랑 나랑 바람을 핏으면》의 주인공은 옆집 아이의 행동을 오래도록 관찰하고, 서서히 부드럽게 다가가 친구가 됩니다. 선불리 자신만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옆집 아이의 엄마가 해 주는 말도 귀 기울여 듣고요. 시민은 하나로 규정되지 않고 아주 다양하며, 이 그림책에서 다루

는 ‘자폐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사는 다양한 시민에 대해 살살이 알아야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씩씩하게 교통 카드를 찍습니다. 뻑, 승차입니다.



김여진(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 서울상신초등학교 교사)

‘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 운영진으로 매달 어린이책 애호가들과 깊이 교류하며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그림책을 번역하며 창작의 기쁨을 독자들과 나눕니다.

– 집필도서: 《어서 오세요, 남산 호텔로!》, 《학교 가기 전날》, 《그림책 한 문장 따라 쓰기 100》 등

– 번역도서: 《모네의 하나뿐인 양산》, 《고흐의 해바라기 아이》, 《엄청나게 커다란 소원》, 《집 안에 무슨 일이?》, 《달팽이 헨리》, 《나는 () 사람이예요》, 《나는 나예요》, 《선생님을 만나서》 등 다수

– 인스타그램: @zorba_the_green



독서전
활동 1

표지를 살펴보아요

표지를 살펴보며 이것저것 상상해 보아요.

어떤 재료로
그렸을 것 같나요?

아이들의 표정이 어때 보이나요?

무엇을 하는 걸까요?

둘은 어떤 사이일까요?



우리만의 시간, 무얼 하며 놀아 볼까?

우연히 함께 가게 된 바닷가에서 둘은 어울려 놀며 우정을 쌓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옆집 아이랑 어디를 가 보고 싶나요? 또, 그곳에서 무얼 하며
놀고 싶은지도 적어 보세요.



예시

장소: (예시) 모래밭이 있는 해변가

하고 싶은 놀이:

(예시) 반들반들한 돌멩이를 던져 물수제비를 뜨며 논다.

그림 그리는 곳:



장소



하고 싶은 놀이



그림 그리는 곳



독서 중
활동 ③

색종이 콜라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아요

《너랑 나랑 바람을 핏으면》 속 장면들은 수채화와 콜라주로 표현되었어요.
콜라주는 형궤, 비닐, 종이, 나무 조각들을 덕지덕지 붙여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답니다.
우리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을 색종이 콜라주로 표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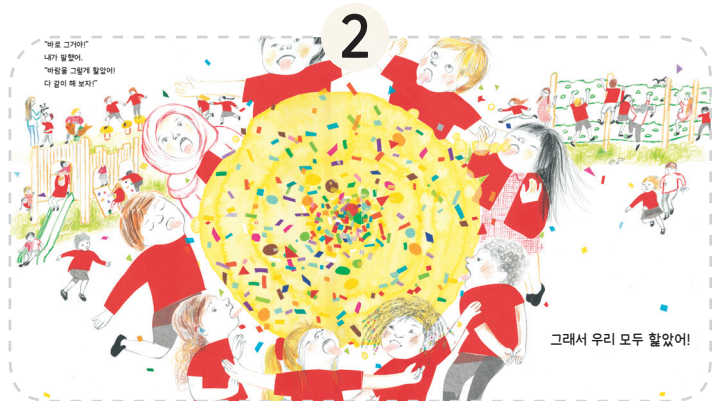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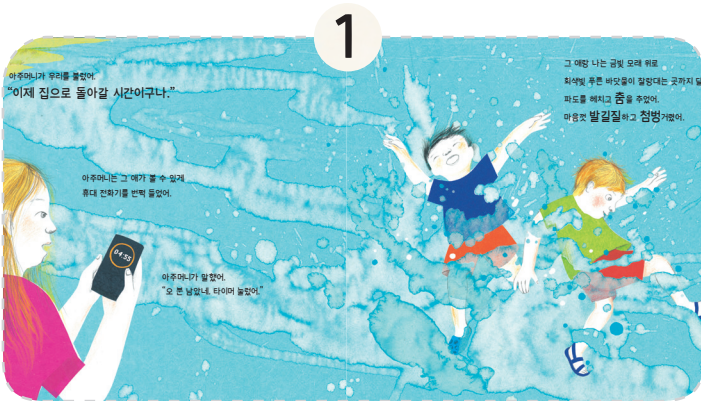
(색종이 콜라주 붙이는 곳)

독서 중
활동 4

주인공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아요

서로 낯설기만 했던 두 아이는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냅니다. 주인공과 옆집 아이가 이동한 순서에 맞게 그림의 번호를 써 보세요.

() → () → () → ()



정답: 3-4-1-2

글 © 김여진 그림 © 위 룡, 2025

※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카출판사 홈페이지(<https://fikabook.io/>) > 도서목록 > 독서활동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Fika
Junior

0, X 퀴즈를 풀어보아요

《너랑 나랑 바람을 핥으면》는 자폐 스펙트럼 어린이가 등장하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살이 읽고, 아래의 문장이 맞으면 0, 틀리면 X에 동그라미 쳐 주세요.

퀴즈1 옆집 아이는 말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한다.

(0, X)

퀴즈2 반 친구들은 주인공과 옆집 아이가 한 일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0, X)

퀴즈3 옆집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마다 아이의 엄마가 호되게 혼을 내었다.

(0, X)

퀴즈4 주인공은 옆집 아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한동안 창가에서 관찰을 했다.

(0, X)

퀴즈5 옆집 아이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한다.

(0, X)

